

중한 재귀대명사 비교 연구*

이은수**

◁ 목 차 ▷

- I. 서론
 - II. 중한 재귀대명사의 기능
 - 1. 중국어 재귀대명사 '自己'의 기능
 - 2. 한국어 재귀대명사 '자기', '자신'의 기능
 - III. 관점 부여 대상의 객관화 정도
 - 1. '自己', '자기', '자신'의 차이
 - 2. 관점 부여 대상의 객관화 정도 차이
 - IV. 결론
-

I. 서론

대용사(anaphor)는 독립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시하지 못하는 명사성 범주를 말하는데, 생성문법에서 대용사는 그 지배 범주 내에서 결속되는 것으로 규정된다.¹⁾

(1) Binding Condition A (Chomsky 1981)

An anaphor is bound in its governing category.

(2) The Governing Category

α is the governing category for β if and only if α is the minimal category containing β , a governor of β , and a SUBJECT accessible to β .

* 본 논문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자들께 감사드립니다.

** 원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1) (1), (2)는 Huang & Liu(2001)에서 재인용.

따라서 대용사의 하나인 재귀대명사(reflexive) 역시 위의 '결속조건 A'를 준수하여 '국부 결속(local binding)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어와 한국어의 재귀대명사로 알려진 '自己', '자기', '자신' 등은 지배 범주 밖의 선행사에 의해 '장거리 결속(Long distance binding)되는 것도 가능하다.

- (3) 張三_i 認爲 [李四 恨 自己_i].
 (4) 영화_i 는 [내가 자기_i 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5) 철수_i 는 [영희가 자신 을 보러 왔다고] 믿고 있다.

영어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결속이론에 잘 부합하지 않는 재귀대명사의 '장거리 결속'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학자들은 주로 LF에서 재귀대명사가 연속적으로 이동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Cole, Hermon and Sung(1990)은 중국어 재귀대명사 '自己'의 '장거리 결속'이 실제로는 '국부 결속(local binding)의 연속이기 때문에 '自己'는 국부 결속과 장거리 결속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Huang & Liu(2001)에 따르면 '주어 지향성'²⁾, '차단 효과' 등 장거리 결속과 관련된 현상들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인정했듯이 이러한 접근법은 '차단 효과'를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차단 효과'(Blocking effect)란 '自己'의 모든 잠재적 선행사가 인칭 등의 자질면에서 일치할 때만 '장거리 결속'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장거리 결속'이 차단되는 현상을 말한다.

- (6) [他_i 覺得 [我_j 對 自己_{i/j} 要求 太 嚴格]]. (Huang 1994)

Huang & Liu(2001)에 따르면 '차단 효과'는 잠재적 선행사의 인칭 뿐 아니라 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7)에서 볼 수 있듯이 '自己'가 보이는 차단 효과는 단수·복수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

- (7) a. 李四_i 說 他們_j 常 批評 自己_{i/j}.

2) '주어지향성'이란 '自己'의 선행사가 일반적으로 주어라는 것이다. 즉 '自己'가 목적어 등 비주어에 의해서는 결속되지 않음을 뜻한다.

b. 他們_i 說 李四_j 常 批評 自己^{*i/j}。

장거리 결속 현상을 LF에서의 연속적 이동으로 보는 접근법에서는 위의 비대칭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만약 ‘차단 효과’가 수에도 관련된다면 (7)의 두 문장은 모두 차단 효과를 보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사적인 접근만으로는 ‘自己’의 ‘장거리 결속’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재귀대명사로 시선을 옮겨보면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진다. 한국어에서 재귀대명사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와 ‘자신’을 대표적인 재귀대명사로 간주한다. 또한 이 두 재귀대명사는 국부 결속과 장거리 결속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학자들이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Cole, Hermon and Sung(1990)에 따르면 ‘자신’은 국부 결속과 장거리 결속이 가능하므로 재귀대명사로 볼 수 있지만, ‘자기’는 장거리 결속만 가능하고 국부 결속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귀대명사로 볼 수 없다.

- (8) a. 철수_i 는 자신_j 을 사랑한다.
 b. 철수_i 는 [영희가 자신_j 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9) a. ??존_i 은 자기_i 를 미워한다.³⁾
 b. 존_i 은 [메리가 자기_i 를 미워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기’가 국부적으로 결속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하는 한국어 재귀대명사에 관한 기존 논의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만다. 성광수(1981) 등 소수의 연구를 제외한다면, 통사적인 접근이든 기능적인 접근이든 간에 ‘자기’의 선행사는 주어 위치에, ‘자기’는 동일 절의 목적어 위치에 있는 예문은 아래 (10)과 같이 일반적으로 재귀대명사 관련 논의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올바른 문장으로 여겨져 왔으며, 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자기’에 관한 통사적 또는 기능적인 이론을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

3) (8), (9)의 예문과 문법성 판단은 Cole, Hermon and Sung(1990)의 것이다. 특히 (9a)와 같은 문장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올바른 문장으로 여기는데 반해 그들은 이를 부자연스런 문장으로 간주한다.

- (10) a. 존은 자기를 경멸한다. (홍순성 1987)
 b. 존이 자기를 비판했다. (O'Grady 1987)
 c. 정수가 자기를 좋아한다. (강범모 1998)

그러나 본고에서는 성광수(1981), Cole, Hermon and Sung(1990)의 문법성 판단과 마찬가지로 (9a)나 (10)과 같은 문장은 다소 부자연스럽다고 본다. 이러한 문법성 판단이 옳다면 국부 결속 자체가 어려운 '자기'는 (국부 결속이 가능한 '자신'과 달리) 생성문법의 틀 내에서 논의를 진행하기가 어렵게 된다. 또한 한국인의 어감에 있어서 '자기'와 '자신'은 그 기능이 유사하다고 여겨지므로 이들 중 하나만을 재귀대명사로 다른 하나는 재귀대명사가 아닌 것으로 구분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재귀대명사 '자기'와 '자신'에 관련된 언어 사실들이 순수 통사적인 접근보다는 기능적인 접근을 통해 설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세 재귀대명사는 '차단 효과'면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차단 효과는 잠재적 선행사들이 인칭 등의 자질을 달리 할 때 장거리 결속이 차단되는 현상을 말한다.⁴⁾

- (11) a. 張三_i 膽心 我_j 會 批評 自己_{*i/j}.
 b. 我_i 膽心 張三_j 會 批評 自己_{?i/j}.
 (12) a. 그_i 는 내_j 가 자기_{i/*j} 를 원망한다고 생각한다.
 b. 내_i 는 그_j 가 자기_{*i/j} 를 원망한다고 생각한다.
 (13) a. 철수_i 는 내_j 가 자신_{i/j} 을 원망한다고 생각한다.
 b. 내_i 는 철수_j 가 자신_{?i/j} 을 원망한다고 생각한다.

'自己'는 인칭 면에 있어서 비대칭적인 차단 효과를 보인다. (11)에서 '自己'의 장거리 결속은 1인칭에 의해서는 차단되지만 3인칭에 의해서는 차단되지 않는다. 반면 (12)에서 한국어 재귀대명사 '자기'는 그 선행사가 보통 3인칭에 한정되므로, 내포절 주어든 모절 주어든 그것이 3인칭일 때만 선행사로 해석되며 따라서 차단

4) '自己'와 '자신'은 (11), (13)과 같이 차단 효과를 보인다. '차단 효과'는 '국부 결속'은 항상 가능하지만 '장거리 결속'은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단 효과'의 존재 자체는 우리가 재귀대명사가 있는 문장을 해석할 때 '국부 결속'이 먼저 일어나고 '장거리 결속'이 나중에 일어남을 암시한다.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13)에서 ‘자신’은 오히려 3인칭에 의해서는 차단되지만 1인칭에 의해서는 차단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보았던 단수·복수의 차이에 따른 차단 효과의 비대칭성과 마찬가지로 인칭에 따른 차단 효과의 비대칭성도 재귀대명사 현상이 순수하게 통사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위의 예문이 보여주듯이 중국어 재귀대명사 ‘自己’와 한국어 재귀대명사 ‘자신’은 흥미롭게도 인칭 면에서 서로 상반되는 차단 효과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중국어와 한국어의 재귀대명사 ‘自己’, ‘자기’, ‘자신’은 기능적으로는 유사해보이지만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이 나타내는 공통의 기능이 무엇인지, 또 이런 동일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차단 효과’나 ‘국부 결속’ 여부 등 관련 현상이 왜 각각의 재귀대명사마다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관해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 해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중한 재귀대명사의 기능

1. 중국어 재귀대명사 ‘自己’의 기능

1) ‘自己’와 Logophoricity

결속이론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중국어와 한국어 재귀대명사의 장거리 결속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학자들은 ‘Logophoricity’(화자지향성)의 개념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Huang & Liu(2001)는 ‘自己’의 국부 결속과 장거리 결속을 구분하여, 국부적으로 결속되는 것은 ‘대용사’, 그 외 장거리 결속되는 것은 화용적인 ‘logophor’(화자지시사)라고 주장했다.

‘Logophoricity’는 Clements(1975)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Sells(1987)가 보충 정리한 개념이다. 서아프리카 언어들에는 일반적인 대명사와는 다른 대명사가 존재하는데, 이 대명사는 말이나 생각, 느낌, 의식 상태 등을 전달할 때 그 주체가 되는 개체를 선행사로 삼는다. Sells(1987)는 여러 언어에 나타나는 장거리 결속 재귀

대명사가 'logophoricity'에 민감하며, 이 개념은 다음 세 하위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했다.

- (14) a. source: 의사전달의 의도적 행위자
 b. SELF: 명제의 내용이 기술하고 있는 정신 상태나 태도의 소유자
 c. pivot: 명제의 내용이 평가되는 시공의 위치에 관련된 개체

Huang & Liu(2001)는 이러한 'logophoricity'를 바탕으로 중국어 재귀대명사 '自己'의 장거리 결속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위 세 가지 요소 중 몇 가지가 허용되는지는 언어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중국어의 장거리 결속 '自己'의 경우 source와 SELF는 쉽게 그 선행사가 되지만 pivot은 상대적으로 선행사가 되기 어렵다고 한다.

- (15) a. 李四_i 說 [張三 常 批評 自己_i].
 b. [自己_i 的 小孩 沒 得 獎] 的 消息 使 李四_i 很 傷 心。
 c. ? [張三 來 看 自己_i] 的 時 候, 李四_i 正 在 看 書。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15c)는 화자가 '李四'에게 단지 감정 이입을 했을 뿐, 그의 정신적 상태나 믿음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장거리 결속되는 '自己'가 'logophoricity'의 하위 요소 중 보다 핵심적인 source와 SELF는 허용하지만 pivot은 쉽게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Huang & Liu(2001)는 몇 가지 증거를 통해 '自己'의 '장거리 결속'이 '국부 결속'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自己'의 선행사가 문장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自己'는 보통 1인칭 대명사에 결속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 (16) 這個想法, 除了自己, 只有三個人贊成。

'自己'가 선행사 없이도 1인칭 대명사에 결속되는 현상은 통사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러나 '自己'를 logophor로 간주한다면 이 현상은 쉽게 설명된다. 왜냐하면 '화자'는 언제나 source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自己'가 source에 의해 결

속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Huang & Liu(2001)는 ‘의식성’(consciousness) 해석의 여부 또한 장거리 결속과 국부 결속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장거리 결속되는 ‘自己’가 그들의 주장대로 source와 SELF를 선행사로 삼는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선행사는 전달되는 관련 사건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 대립쌍에서 볼 수 있듯이 ‘自己’의 ‘장거리 결속’은 ‘의식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때만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 (17) a. 張三_i 誇獎了 [[常常 批評 自己_i 的] 那些人_j].
 b. ??張三 誇獎了 [[後來 殺死 自己_i 的] 那些人_j].

‘국부 결속’에서는 이러한 의식성 해석이 필수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18)은 ‘張三’이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그가 비판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의 친구임을 모를 경우에도 자연스런 문장으로 여겨진다.

- (18) a. 張三_i 批評了 自己_i.
 b. 張三_i 批評了 自己_i 的 朋友.

Huang & Liu(2001)는 ‘logophoricity’ 개념을 통해 장거리 결속되는 ‘自己’의 여러 특징적인 현상들을 설명해내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들의 연구에도 몇 가지 한계가 있다고 본다.

첫째 ‘장거리 결속’의 경우에도 ‘의식성’을 동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경우가 간혹 있다.

- (19) 張三_i 不喜歡 [那些 批評 自己_i] 的 人. (王瑩瑩·潘海華 2012)

(19)는 장거리 결속되는 ‘自己’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Huang & Liu(2001)의 주장이 옳다면 (19)는 ‘의식성’을 동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비판받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張三’이 모르는 상황에서도 (19)는 자연스럽다고 한다. Huang & Liu(2001)에 따르면, ‘自己’의 장거리 결속

은 반드시 의식성 해석을 동반해야만 가능한데, 해당 상황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pivot을 선행사로 삼고 있는 (19)가 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들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Huang & Liu(2001)가 제시한 다음 대립쌍은 pivot의 경우 ‘의식성’ 해석 없이도 문법성이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20) a. ?*張三 誇獎了 [[後來 殺死 自己_i 的] 那些人_j].
 b. ?張三 誇獎過 [[後來 殺死 自己_i 的] 那些人_j].

위 두 문장은 둘 다 ‘自己’의 선행사가 해당 상황을 의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그러나 Huang & Liu에 따르면 (20b)와 같이 화자의 관점이 개입되면 문법성이 개선되는데, 이는 화자의 관점이 개입되어 ‘自己’의 선행사에 화자로부터 ‘가상’의 ‘의식성’이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pivot은 관점의 주체이므로 여기에 다시 화자의 관점이 개입된다면 ‘차단 효과’에서와 같이 두 관점의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20b)는 이러한 관점의 충돌 없이 문법성이 개선되고 있다.

만약 Huang & Liu(2001)의 주장대로 (20b)에서 외부 화자가 관점의 충돌 없이 ‘張三’에게 ‘가상의 의식성’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장거리 결속되는 모든 ‘自己’에 대해서도 동일한 설명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15) a. 李四_i 說 [張三 常 批評 自己_i].
 b. [自己_i 的 小孩 沒 得 獎] 的 消息 使 李四_i 很 傷 心。

(15)의 두 문장에서 ‘自己’는 source와 SELF에 의해 장거리 결속되고 있다. 이러한 예에서도 우리는 화자가 3인칭 명사구 ‘李四’에게 ‘가상의 의식성’을 부여한다고 본다. 즉 화자의 관점 부여에 의한 화자의 의식성 부여는 pivot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거리 결속 ‘自己’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둘째 Huang & Liu(2001)는 ‘의식성’ 해석이 장거리 결속 ‘自己’에만 국한되는 것이므로 ‘국부 결속’과 구별되는 ‘장거리 결속’만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국부적으로 결속되는 ‘自己’ 역시 ‘의식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는게 보다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18)은 비판받는 사람이 자기 자신, 또는 자기 친구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자연스럽다고 한다. 그러나 (18)의 보다 더 일반적인 해석은 ‘張三’이 의식성을 갖는 것이며, ‘張三’이 의식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려면 오히려 굳이 그런 특수한 환경을 가정할 때만 가능하다.

- (18) a. 張三i 批評了 自己i.
b. 張三i 批評了 自己i 的 朋友。

이렇게 본다면 ‘의식성’은 장거리 결속되는 ‘自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부 결속’을 포함하는 ‘自己’ 전체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장 내에 선행사가 나타나지 않아 담화 상에서 3인칭에 결속되는 ‘自己’에 대해 Huang & Liu(2001)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그들의 견해로는 문장 내에 선행사가 없으면 담화 상에서 결속되어야 하는데, 외부 화자는 항상 ‘source’이므로 ‘自己’는 화자에 결속될 것으로 예측하게 된다. 그러나 Pan(2001)이 제시한 (21)은 일반적으로 화자가 아닌 청자에 결속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만약 담화 상 제3자가 현저한 존재라면 ‘自己’가 제3자에 결속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그들의 이론은 문장 내에 선행사가 없는 ‘自己’의 결속 현상을 올바르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 (21) 自己爲什麼不去呢?
Why didn't self(you) go?

2) ‘自己’와 Perspectivity

장거리 결속되는 ‘自己’를 Logophoricity로 설명하려는 접근법에서는 ‘장거리 결속’이 ‘국부 결속’과 ‘의식성’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장거리 결속과 국부 결속을 포함하는 모든 ‘自己’는 ‘의식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는 게 일반적이다. 또한 담화 결속되는 ‘自己’ 역시 source인 외부 화자에게 반드시 결속될 필요 없이, 청자든 그 외의 제3자든 담화 상에서 현저한 대상에 의해 결속된다. 또한 (20)의 대립쌍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pivot의 경우에도 ‘自己’는

일반적으로 의식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의식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그 문법성이 떨어지지만, 다시금 화자의 관점이 개입되어 '가상의 의식성'이 부여되면 문법성이 다시 회복된다.

이와 같이 '自己'를 내포하는 올바른 문장은 그것이 국부 결속된 것이든 장거리 결속된 것이든 일반적으로 '의식성' 해석을 동반하게 된다. 그런데 선행사가 '의식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유는 화자에 의해 선행사가 관점을 부여받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외부 화자가 어떤 대상에게 '관점'(perspective)을 부여할 때 '自己'가 사용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관점을 부여받은 '自己'의 선행사는 자연스레 의식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기 때문이다.

장거리 결속에서 source, SELF와 달리 pivot은 '自己'의 선행사가 잘 되지 못하지만, 화자가 pivot에 다시 '가상의 의식성'을 부여할 때 문법성이 개선된다는 Huang & Liu(2001)의 관찰 역시 동일하게 설명될 수 있다. source, SELF와 pivot은 '自己'를 내포하는 절에 대해 갖는 지위가 다르다. 화자가 source나 SELF에게 관점을 부여한 경우, source와 SELF의 위치는 '自己'를 내포하는 절의 내용을 발화하는 주체이거나 그 절의 상황을 경험하는 경험주를 나타낸다. 따라서 source와 SELF는 '自己'를 내포하는 절의 상황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반면 화자가 pivot에게 관점을 부여한 경우, 즉 '自己'의 선행사가 pivot인 경우에는 pivot이 '自己'를 내포하는 절의 상황을 반드시 의식하게 되는 위치가 아니다. 그런데 '自己'는 화자가 어떤 대상에게 관점을 부여할 때 그 대상의 관점에서 상황을 기술함을 나타내므로, 그 지시 대상이 '自己'에 의해 관점을 부여 받았으면서도 '自己'를 내포하는 절의 상황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문장은 부자연스럽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시금 화자의 관점을 개입시켜야만 문장의 문법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화자가 어떤 대상에게 관점을 부여하여 그 대상의 관점에서 해당 상황을 기술함을 나타낼 때 '自己'가 사용되며, 화자에 의해 관점을 부여받은 대상은 자연스레 '의식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관점의 부여와 그에 따르는 의식성의 부여는 국부 결속과 장거리 결속의 구분 없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2. 한국어 재귀대명사 ‘자기’, ‘자신’의 기능

이번에는 국어의 재귀대명사 ‘자기’와 ‘자신’이 ‘장거리 결속’되는 예를 살펴보자.

- (22) a. 철수는 영희가 항상 자기를 비판한다고 말했다.
 b. 철수는 영희가 항상 자신을 비판한다고 말했다.
- (23) a. 자기 아이가 상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철수를 슬프게 했다.
 b. 자신의 아이가 상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철수를 슬프게 했다.
- (24) a. ?영희가 자기를 보러 왔을 때, 철수는 책을 읽고 있었다.
 b. ??영희가 자신을 보러 왔을 때, 철수는 책을 읽고 있었다.

‘자기’와 ‘자신’이 ‘장거리 결속’되는 예는 이 두 재귀대명사가 중국어 재귀대명사 ‘自己’와 여러 면에서 유사함을 보여준다. ‘자기’와 ‘자신’의 경우에도 source와 SELF가 선행사가 되는 문장은 자연스러운데 반해 pivot이 선행사가 되는 문장은 다소 부자연스럽다. 또한 (24)가 부자연스러운 이유는 ‘자기’나 ‘자신’의 선행사인 ‘철수가 ‘영희가 철수를 보러왔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24)가 부자연스러운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pivot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문장 내에서 pivot이 ‘의식성’ 해석을 필수적으로 받지는 못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

(20)과 마찬가지로 pivot을 선행사로 하는 (25)의 두 문장은 선행사인 철수가 ‘자기’를 내포하는 절의 상황을 의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가령 (25a)에서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철수는 훗날 그들이 철수를 죽이게 된다는 것을 당연히 모른다. 따라서 ‘자기’의 선행사가 의식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25a)는 매우 부자연스럽다. 그런데 (25b)와 같이 화자의 관점이 다시 개입되면 문장의 문법성이 다소 개선된다.

5) 그런데 (24)의 두 문장 중에서 ‘자신’을 포함하는 b가 ‘자기’를 포함하는 a보다 더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앞으로 논의하겠지만 이는 ‘자기’의 경우 ‘분리 가능한 자아’를 나타낼 수도 있어서 의식성 해석이 다소 결여된 상황에서도 쓰일 수 있지만, ‘자신’은 ‘분리 가능한 자아’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 (25) a. ?*철수는 훗날 자기를 죽이게 되는 그 사람들을 칭찬했다.
 b. ?철수는 훗날 자기를 죽이게 되는 그 사람들을 칭찬한 적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自己’와 마찬가지로 ‘자기’와 ‘자신’의 사용 역시 화자가 어떤 대상에게 관점을 부여하여 그 대상의 관점에서 상황을 기술함을 나타낸다고 본다. 물론 화자로부터 관점을 부여받은 대상은 자연스레 해당 상황을 의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본다면 재귀대명사 ‘자기’, ‘자신’ 그리고 ‘自己’는 그 기능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 따르면 ‘자기’와 ‘자신’은 ‘국부 결속’과 ‘장거리 결속’ 중 어느 쪽에 선호도를 보이는지, ‘국부 결속’이 특별한 제약 없이 이루어지는지와 ‘의식성’의 정도 차이 등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 다시 중국어 재귀대명사 ‘自己’까지 논의에 포함시킨다면 ‘차단 효과’ 등에서도 세 재귀대명사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들 세 재귀대명사가 만약 기능 면에서 동일하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에 관해 다시 설명해야만 할 것이다.

Ⅲ. 관점 부여 대상의 객관화 정도

1. ‘자기’, ‘자신’, ‘自己’의 차이

한국어와 중국어의 재귀대명사들이 ‘화자의 관점 부여와 그 대상의 관점에서 상황을 기술함’이라는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고 가정한다면 그 선행사가 갖는 의식성은 자연스레 설명된다. 그런데 그 밖의 여러 면에서 이들 세 재귀대명사는 각각 차이를 보인다.

먼저 ‘자기’는 ‘자신’이나 ‘自己’와는 달리 3인칭만을 선행사로 삼는다. (26), (27)은 홍순성(1987), (28)은 Xue(1992)의 예이다.

- (26) a. *나는 자기를 경멸한다.
 b. 저는 자기를 경멸한다.⁶⁾

- (27) a. 나는 자신을 경멸한다.
 b. 존은 자신을 경멸한다.
 (28) a. 我_i 喜歡 自己_i.
 b. 張三_i 喜歡 自己_i.

두 번째 ‘자신’과 ‘自己’는 국부 결속과 장거리 결속 모두 가능하지만, ‘자기’는 장거리 결속에 비해 국부 결속이 꽤 부자연스럽다.

- (8) a. 철수_i 는 자신_j 을 사랑한다.
 b. 철수_i 는 [영희가 자신_j 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9) a. ??존 은 자기_i 를 미워한다.
 b. 존 은 [메리가 자기_i 를 미워한다고] 생각한다.
 (29) a. 張三_i 恨 自己_i.
 b. 張三_i 認爲 李四 恨 自己_i.

국부 결속되는 ‘자기’의 좋지 않은 문법성은 술어의 의미나 화용적인 요소에 의해 다소 개선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국부 결속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자기’는 ‘自己’나 ‘자신’과 달리 ‘차단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물론 ‘자기’가 3인칭만을 선행사로 삼기 때문이다.

- (11) a. 張三_i 擔心 我_j 會 批評 自己_i/*_j.
 b. 我_i 擔心 張三_j 會 批評 自己_i?/*_j.
 (12) a. 그_i 는 내_j 가 자기_i/*_j 를 원망한다고 생각한다.
 b. 내_i 는 그_j 가 자기_i/*_j 를 원망한다고 생각한다.
 (13) a. 철수_i 는 내_j 가 자신_i/*_j 을 원망한다고 생각한다.
 b. 내_i 는 철수_j 가 자신_i/*_j 을 원망한다고 생각한다.

6) 서론의 (9a)와 (10)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했듯이, 본고에서는 ‘자기’의 선행사가 주어 위치에, ‘자기’가 동일 절의 목적어 위치에 있는 문장은 다소 부자연스럽다고 본다. 그러나 (26)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는 확실히 1인칭보다는 3인칭 선행사를 선호한다. 또한 앞으로 논의하겠지만 ‘자기를’ 뒤에 이어지는 술어가 ‘신체적’ 의미가 아니라 ‘추상적’, ‘심리적’ 의미일 경우에는 ‘자기’가 동일 절 내의 주어를 선행사로 삼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게 된다.

‘自己’와 ‘자신’은 ‘차단 효과’를 보이는데, ‘차단 효과’란 ‘국부 결속’은 항상 허용되지만, 인칭 등 자질 면의 불일치로 인해 ‘장거리 결속’은 차단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차단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재귀대명사가 있는 문장의 해석에서 ‘국부 결속’이 먼저 일어나고 다음으로 ‘장거리 결속’이 일어남을 암시한다.⁷⁾ 그런데 이들이 보여주는 차단 효과는 인칭 면에서 서로 다르다. 먼저 ‘自己’는 내포절의 1인칭 명사구에 의해 모절의 3인칭 명사구의 결속이 차단되지만, ‘자신’은 오히려 내포절의 3인칭 명사구에 의해 모절의 1인칭 명사구의 결속이 차단된다.

또 (30)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은 일반적으로 국부 결속이 선호되지만 ‘자기’는 장거리 결속이 선호된다. 한편 ‘自己’는 (31)에서 볼 수 있듯이 잠재적 선행사가 셋일 때 최대절이나 최소절의 주어가 선행사로 선호되고 중간절의 주어는 ‘自己’를 결속하기 어렵다.

(30) a. 철수는 [영희가 자신(j)을 원망한다고] 생각한다.

b. 철수는 [영희가 자기(i)]를 원망한다고 생각한다.

(31) 老張i 認為 小王j 知道 小李k 不 喜歡 自己i/j/k. (程工 1994)

마지막으로 아래 예에서 세 재귀대명사는 의식성 해석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32) a. 철수는 자기(i)를 비판했다. (임흥빈 1987)

b. 철수는 자신을 비판했다.

c. 張三i 批評 了 自己i. (Huang & Liu 2001)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위 예문의 가장 자연스런 해석은 주어의 지시 대상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판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와 ‘自己’를 내포하는 (32a), (32c)는 비판하는 지시 대상이 자기 자신임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자연스러운데 반해, (32b)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쓰일 수 없다.

본고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세 재귀대명사가 보이는 이러한 차이가 각 재귀대명사가 관점 부여 대상에 대해 요구하는 객관화 정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

7) 차단 효과가 암시하는 이러한 해석상의 순서는 아마도 程工(1994)이 언급한 대뇌의 정보처리에서의 경제원칙과 관련되는 것 같다.

고, 그 연관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2. 관점 부여 대상의 객관화 정도 차이

임흥빈(1987)은 '자기'를 사용할 때 '주관화'와 '객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것이 한국어와 중국어 재귀대명사의 공통된 특성이라고 본다. 재귀대명사는 화자가 어느 대상에게 관점을 부여하여 그 대상의 관점에서 상황을 기술할 때 사용된다고 가정한다면, 화자의 관점이 부여되어 그 지시 대상이 '관점의 주체'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주관화'가 일어나며, 다른 한편 화자가 어떤 외부의 대상에게 관점을 부여하고 화자의 관점이 아니라 그 대상의 관점에서 상황을 기술한다는 점에서 '객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재귀대명사 사용 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주관화, 객관화 외에도 각각의 재귀대명사가 관점이 부여되는 대상에 대해 요구하는 '객관화'가 따로 존재하며, 이러한 '객관화' 요구는 각 재귀대명사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한국어 재귀대명사 '자기'와 '자신'은 관점 부여 대상에 대해 요구하는 '객관화'의 정도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자기'는 '자신'에 비해 보다 강한 객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칭 면에서 볼 때 1인칭과 2인칭에 비해 3인칭은 보다 객관화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26)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는 일반적으로 보다 더 객관화된 3인칭만을 선행사로 삼는다. 이와 달리 '자신'이나 '自己'는 1인칭과 2인칭을 선행사로 삼는 것도 자연스럽다.

- (26) a. *나_i는 자기_i를 경멸한다.
 b. 존은 자기_i를 경멸한다.
 (27) a. 나_i는 자신_i를 경멸한다.
 b. 존은 자신_i를 경멸한다.
 (28) a. 我_i 喜歡 自己_i.
 b. 張三_i 喜歡 自己_i.

그러나 다음의 예문을 통해 임흥빈(1987)이 지적했듯이 '자기'의 선행사가 반드시 3인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인칭과 2인칭이라 해도 그 대상을 좀 더 '객관

화'할 수 있다면 해당 문장의 문법성이 개선될 수 있다.

- (33) a. ?*나는 가끔 자기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b. ?나도 가끔 자기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34) a. ??나는 자기 일을 한다.
 b. 내가 언제 자기 고집만 부렸어요.
 (35) a. ?? 너는 자기 일을 한다.
 b. 너는 왜 자기 고집만 부리느냐?

(33a), (34a), (35a)는 '자기가 1인칭이나 2인칭을 선행사로 삼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33b), (34b), (35b)는 문법성이 개선되고 있다. 임흥빈(1987)은 이것이 '타자 시점'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33b), (34b)는 '내가 '나에 관한 일'을 표현하면서도 '타자 시점'에 의해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35)에서도 a와 같이 아무런 전제 없이 말할 경우 문장이 이상하지만, b에서는 2인칭의 행위가 화자의 입장과 비교하여 언급되고 있으므로 역시 '타자의 시점'이 도입되어 보다 자연스러워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타자 시점의 도입' 역시 '자기가' 관점 부여 대상에 대해 보다 강한 객관화를 요구한다는 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자기'는 보다 객관화된 대상에게 관점을 부여하므로 일반적으로 3인칭만을 선행사로 삼지만, 1인칭, 2인칭이라 해도 '타자의 시점'이 도입되어 추가적으로 '객관화'될 수 있다면 선행사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자기'의 관점 부여 대상에 대한 강한 객관화의 요구는 비단 인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자기'는 '자신'과 달리 국부적으로 결속되는 게 그리 자연스럽지 않은데, 이 역시 '자기'의 관점 부여 대상에 대한 객관화 요구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 (8) a. 철수_i 는 자신_i 을 사랑한다.
 b. 철수_i 는 [영희가 자신_i 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9) a. ??준_i 은 자기_i 를 미워한다.
 b. 준_i 은 [메리가 자기_i 를 미워한다고] 생각한다.

- (10) a. 張三_i 恨 自己_i.
 b. 張三_i 認爲 [李四 恨 自己_i].

‘자기’가 재귀대명사로 쓰일 때, ‘자기’는 그 지시 대상에 대해 강한 객관화를 요구한다고 가정해보자. (9a)에서 ‘자기’의 선행사 ‘존’은 3인칭으로서 어느 정도 객관화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자기’를 포함하는 절의 주어이기도 하다. 그런데 ‘주어’는 절 내에서 관점의 중심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절 내에서는 그 지시 대상이 강하게 객관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9a)의 ‘존’은 3인칭이면서도 절 내에서 ‘자기’의 지시 대상에 대한 강한 객관화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9a)의 문장이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9b)에서 모절 주어인 ‘존’은 ‘자기’를 포함하는 절의 밖에 위치한다. 따라서 ‘자기’를 포함하는 절 내에서 ‘자기’의 지시 대상에 대한 객관화 요구는 여전히 만족된다. 즉 ‘자기’의 지시 대상은 강하게 객관화될 것을 요구받지만, 이러한 객관화 요구는 ‘자기’를 포함하는 절 내에서만의 문제라는 것이다.

원래 ‘주어’는 일반적으로 ‘행위자’나 ‘경험주’의 의미역을 갖는 화자의 관점이 부여되기에 좋은 지위에 있다. 그런데 ‘자기’는 그것을 포함하는 절 내에서 관점 부여 대상에 대해 강한 객관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자기’를 내포하는 절의 주어는 이러한 ‘절 내에서의 객관화 요구’를 어렵게 만들어 ‘자기’의 선행사가 되기 어려워진 것이다. 반면 ‘자기’를 내포하는 절 밖의 주어는 ‘자기’의 지시 대상에 대한 객관화 요구가 적용되는 범위(즉 ‘자기’를 포함하는 절) 밖에 있으므로 선행사로서 선호된다.

정리하자면 ‘자기’의 지시 대상에 대한 객관화 요구는 첫째 인칭 면에서의 객관화, 둘째 ‘자기’를 내포하는 절(국부 영역) 내에서의 객관화로 나타난다. 먼저 인칭 면에서 1, 2인칭은 그 위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화자에 의해 강하게 주관화되므로 ‘타자 시점’이 따로 개입되지 않는 한 ‘자기’의 객관화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해 선행사가 되기 어렵다. 다음으로 ‘자기’를 내포하는 절(국부 영역) 내에서의 객관화 요구를 생각해 보자. ‘자기’가 내포절에 있을 때 ‘자기’의 선행사는 3인칭이라 해도 그 선행사가 모절 주어일 때와 내포절 주어일 때는 ‘객관화’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자기’는 그것을 내포하는 절 내에서 객관화될 것을 요구받게 되는데, 내포절의 주어는 일반적으로 절 내에서 관점의 중심으로 해석되므로 그 지시 대상이 강하

게 객관화될 수 없다. 따라서 내포절의 주어는 ‘자기’의 선행사로 선호되지 않는다. 반면 국부 영역 내의 객관화 요구를 받지 않는 모절 주어는 ‘자기’의 선행사로 선호된다는 것이다.

‘자기가 ‘장거리 결속’을 선호한다는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반례가 있을 수 있다.

(36) 병수는 정수가 자기(의) 동생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강범모 1998)

(36)과 같은 예문의 논의에서 흔히 ‘병수’는 장거리 결속 선행사로 ‘정수’는 국부 결속 선행사로 여겨진다. 그러나 강범모(1998)가 지적했듯이 “하나의 명사구는 문장과 같이 주어를 갖는 결속 이론상의 독자적 근거 영역을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는 ‘정수’도 장거리 선행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의+명사구가 국부 결속되는 예는 사실상 장거리 결속의 예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자기’는 여전히 전반적으로 장거리 결속을 선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자신’과 ‘自己’는 (27), (28)에서 볼 수 있듯이 1인칭, 2인칭, 3인칭 모두를 선행사로 삼을 수 있고, 또 (8), (10)에서 볼 수 있듯이 동절 내의 주어를 선행사로 삼는 것도 자연스럽게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둘 다 관점이 부여되는 대상에 대한 객관화 요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또 ‘자신’은 ‘自己’와 마찬가지로 국부 결속과 장거리 결속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언어사실을 통해 볼 때, ‘自己’는 관점이 부여되는 대상에 대한 객관화 요구가 없지만, ‘자신’의 경우에는 관점 부여 대상에 대해 객관화의 요구가 약하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약한 객관화 요구는 인칭 면에서 나타난다. ‘자신’은 표면적으로는 모든 인칭을 선행사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인칭과 3인칭이 잠재적 선행사일 경우 3인칭을 선호하며, 이는 ‘차단 효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 (11) a. 張三_i 擔心 我_j 會 批評 自己^{*i/j}.
 b. 我_i 擔心 張三_j 會 批評 自己^{?i/j}.
 (12) a. 그_i 는 내_j 가 자기_{i/*j} 를 원망한다고 생각한다.
 b. 내_i 는 그_j 가 자기^{*i/j} 를 원망한다고 생각한다.
 (13) a. 철수_i 는 내_j 가 자신_{i/j} 을 원망한다고 생각한다.
 b. 내_i 는 철수_j 가 자신^{?i/j} 을 원망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차단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재귀대명사가 있는 문장의 해석에서 국부결속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장거리 결속이 일어남을 암시한다. 따라서 ‘자신’이 국부 결속되는 것으로 해석될 때 (13a)에서는 1인칭, (13b)에서는 3인칭에 결속되는 것이 모두 자연스럽다. 그런데 국부 결속 다음으로 장거리 결속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13a)와 같이 내포절의 주어가 1인칭, 모절의 주어가 3인칭인 경우에는 차단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13b)와 같이 내포절의 주어가 3인칭, 모절의 주어가 1인칭인 경우에는 차단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이 3인칭을 약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내포절에 3인칭 주어가 있을 경우 국부 영역에서 이 3인칭 명사구를 선행사로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 장거리 영역에서는 더 이상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1인칭 명사구를 선행사로 선택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내포절 주어가 1인칭, 모절의 주어가 3인칭일 경우에는, 결속의 순서 상 국부 영역에서 우선 1인칭 명사구를 선행사로 선택하지만, 오히려 장거리 영역에 보다 선호되는 3인칭 명사구가 있으므로 이를 다시 선행사로 삼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12)에서는 물론 ‘자기’가 보통 3인칭만을 선행사로 삼고 또 장거리 결속을 강하게 선호하므로 ‘차단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중국어 재귀대명사 ‘自己’는 선행사의 인칭에 대한 제약이 전혀 없다. 여기에도 재귀대명사를 포함하는 문장을 해석할 때 먼저 국부 결속으로 해석되고 그 다음 장거리 결속으로 해석된다고 한다면, (11a)에서는 먼저 1인칭 주어 ‘我’에 국부 결속되는 것으로, (11b)에서는 3인칭 주어 ‘張三’에 국부 결속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다음 다시 장거리 결속으로 해석되려면 화자는 인칭의 변화에 따라 관점을 부여할 대상을 바꿔야 한다. 그런데 재귀대명사 현상은 화자가 어떤 대상에게 관점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자기’, ‘자신’과 같은 관점 부여 대상에 대한 객관화 요구가 없는 한) 관점 부여의 잠재적 대상이 화자와 제3자라면 물론 화자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포절의 1인칭 대명사는 모절의 3인칭 명사구를 선행사로 받지 못하도록 차단하지만, 내포절의 3인칭 명사구는 모절의 1인칭 명사구를 차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自己’가 보이는 차단 효과는 단지 ‘화자의 관점 부여’라는 재귀대명사 사용의 일반적 원리에 의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볼 때 ‘自己’는 관점 부여 대상에 대한 객관화의 요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의식성’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 (32) a. 철수는 자기를 비판했다.⁸⁾ (임홍빈 1987)
 b. 철수는 자신을 비판했다.
 c. 張三i 批評 了 自己i. (Huang & Liu 2001)

(32a)는 자기가 자기를 비판한다는 것을 철수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임홍빈(1987)에 따르면 ‘철수’의 친구들이 ‘철수’ 욕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그 모임에 끼게 된 ‘철수’가 자기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그들에게 동조하여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상황에서도 (32a)를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Huang & Liu(2001)도 ‘張三’이 자기가 비판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32c)는 자연스럽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기’와 ‘自己’는 의식성의 해석이 항상 필수적이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반면 (32b)는 자기가 비판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임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발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자기’와 ‘자신’의 이러한 차이가 한국어에서 두 재귀대명사가 역할 분담을 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자기’와 ‘자신’은 그 한자어가 모두 ‘스스로’와 ‘몸’의 의미의 조합으로서 구성 면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실제 언어 사실을 살펴보면 둘 중에서 ‘자신’이 보다 더 ‘신체’적인 의미로 쓰인다.

- (37) a. 철수는 자기 물을 마셨다.
 b. 철수는 자신의 물을 마셨다.

임홍빈(1987)에 따르면 (37a)는 보통 철수 몫의 물 또는 철수 소유의 물을 마신 것으로 이해되지만, (37b)는 ‘철수의 몸에서 생성된 물’이란 의미로 해석되기 쉽다. 임홍빈은 위의 대조를 통해 ‘자신’이 ‘자기’보다 신체적인 의미를 더 강하게 가지므로 [-의식성]의 자질을 띠며, ‘자기’는 [+의식성]의 자질을 띤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자기’와 ‘자신’ 모두 화자에 의해 관점이 주어진 지시 대상에 의해

8) ‘자기’는 국부 결속이 선호되지 않으므로 (35a)도 매우 좋은 문장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뒤에 다시 논의하겠지만 술어의 의미가 추상적, 심리적인 경우에는 국부 결속도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

상황이 기술됨을 나타내므로, 양자가 모두 [+의식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본다. 다만 ‘자신’은 신체적인 의미가 더 강하게 부각되므로 ‘자신’에 의해 관점을 부여받은 지시 대상은 단지 ‘의식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신체’를 포함하는 심신이 분리되지 않은 의식의 주체로 여겨진다. 반면 ‘신체’ 의미가 강하게 부각되지 않는 ‘자기’는 신체와는 분리된 의식의 주체, 또는 ‘정신적 자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다음은 임홍빈(1987)의 예이다.

- (38) a. 철수는 자기도 모르는 얼떨결에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
 b. ?철수는 자신도 모르는 얼떨결에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
 (39) a. 철수는 잃어버린 자기를 찾아서 방황하였다.
 b. ?*철수는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서 방황하였다.

‘자기’와 ‘자신’은 모두 의식성을 가진 주체를 나타낸다. 그런데 ‘자신’이 재귀대명사로 쓰이면 ‘정신적 자아’와 ‘신체적인 자신’이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반해 ‘자기’가 재귀대명사로 쓰이면 신체와는 분리된 ‘자아’만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자기’가 ‘분리된 자아’를 나타낼 수 있다면, 의식성이 다소 결여된 자아를 나타낼 수도 있다. 따라서 (38a)와 같이 의식성 해석이 약화될 수도 있고, (38b)와 같이 ‘자아’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자신’은 신체를 포함하는 분리 불가능한 자아를 나타내므로 (39a)와 같이 의식성이 약화되어 해석되는 것도 어렵고, (39b)와 같이 잃어버렸다고 되찾는 것도 불가능하다.

- (40) a. 철수는 자기를 발로 찼다.
 b. *철수는 자신을 발로 찼다. (임홍빈 1987)
 (41) 蔣介石 狠狠地 打了 自己 一下。 (Liu 2003)

(40), (41)은 주어인 ‘철수’ 또는 ‘蔣介石’이 자기 동상을 차거나 때린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상술했듯이 ‘자기’는 ‘분리 가능한 자아’를 나타내므로 (40a)와 같이 철수가 자신과는 별개인 ‘동상’에 대해서도 ‘자기’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은 분리 불가능한 자아를 나타내므로 (40b)와 같이 ‘동상’에 대해 ‘자신’으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한국어의 두 재귀대명사는 자아의 분리 가능성 해석 여부에 있어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편 중국어 재귀대명사 ‘自己’는 (‘자기’와 마찬가지로) 신체적인 의미가 특별히 강조되지 않아서 분리 가능한 자어를 나타내는 것도 가능하므로 (41)와 같이 동상에 대해 ‘自己’로 표현할 수 있다.

한국어 재귀대명사들의 역할 분담에서 ‘자신’은 상대적으로 보다 더 신체적인 면이 강조되고, 반면에 ‘자기’는 상대적으로 보다 정신적인 면이 강조되어 쓰인다. 이러한 점은 ‘국부 결속’될 때 ‘자기’와 빈번하게 공기하는 술어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

강범모(1998)는 ‘자기’가 ‘장거리 결속’이 선호된다는 연구가 있지만 직접 코퍼스 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국부 결속’과 ‘장거리 결속’에 대한 ‘자기’의 선호도 차이는 큰 의미가 없을 정도의 미세한 차이라고 간주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의 주장과 배치되는데, 본고에서 관찰해왔던 예에서 ‘자기’는 일반적으로 ‘장거리 결속’이 선호되고 ‘국부 결속’의 경우 매우 부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강범모의 예문을 통해 ‘국부 결속’되는 ‘자기’를 내포하는 절의 술어가 보통 신체적인 동작과는 거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다음은 강범모(1998)가 코퍼스로부터 제시한 국부 결속의 예이다.

- (42) a. 겨우내 얼음 속에서 청정하게 자기를 ‘가꾸었던’ 골짜기의 맑은 물이며 잔디의 속잎이며.
b. 틈 있는 대로 읽어서 감상하며 자기를 더욱 ‘가다듬는’ 일도 귀중한 일이다.

(42)에서 국부 결속의 술어로 쓰인 ‘가꾸다’, ‘가다듬다’ 등은 신체적인 의미와는 거리가 먼 추상적 의미의 술어이며, 그 목적어가 되는 ‘자기’ 역시 추상적인 ‘자아’의 개념으로 해석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강범모의 연구 결과는 ‘국부 결속’되는 ‘자기’의 용례가 예상보다 많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본고에서는 국부 결속되는 ‘자기’와 함께 쓰이는 술어가 보통 추상적, 심리적 의미로 제한된다고 본다.

역시 코퍼스를 통해 ‘자기’를 고찰한 한송화(2013)는 동절의 주어와 공지시하는 목적어 위치에 재귀대명사가 쓰일 때는 거의 ‘자기’로 실현되지 않고 ‘자신’으로 실현된다고 밝히고 있다. 강범모(1998)에서 ‘자기’가 ‘국부 결속’과 ‘장거리 결속’이 거의 대등한 비율로 나타난다고 본 데 대해서도 한송화(2013)는 ‘자기’가 국부 결속

될 때는 (43)와 같은 특정 술어들과 연어 관계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⁹⁾ 이러한 연구 결과 역시 ‘자기’가 국부 결속될 때는 주로 ‘추상적인 자아’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3) (자기를) 나타내다, 돌아보다, 드러내다, 발견하다, 버리다, 부정하다,
소개하다, 잃어버리다, 존중하다, 주장하다, 찾다, 포기하다, 표현하다,
희생하다 ...

이렇게 볼 때 한국어 재귀대명사 ‘자기’와 ‘자신’은 상대적으로 정신적인 면이 강조되는지 신체적인 면이 강조되는지에 따라 역할 분담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어 ‘自己’는 아마도 이러한 역할 분담이 없기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인 구분 없이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중국어 재귀대명사 ‘自己’와 한국어 재귀대명사 ‘자기’, ‘자신’은 그 기능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선행사의 인칭, 차단 효과, 의식성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고는 여러 언어사실을 통해 재귀대명사 현상이 순수 통사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고 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 해답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본고에서는 이들 세 재귀대명사가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고 본다. 이들 재귀대명사의 기능은 화자가 어떤 대상에 관점을 부여하여 그 대상의 관점에서 해당 상황을 기술한다는 것이다. 화자가 어느 대상에 관점을 부여하면 그 대상은 자연히 의식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선행사가 의식성을 갖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그 문장은 부자연스럽게 된다.

한국어 재귀대명사 ‘자기’와 ‘자신’은 관점 부여 대상에 대한 객관화 요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자기’는 관점 부여 대상에 대해 강한 객관화를 요구하므로 선행사

9) 한송화(2013)는 이렇게 특정 술어들과 연어 관계를 보이는 ‘자기’는 대응적 의미가 아니라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 보통 3인칭으로 한정되고 또한 ‘자기’를 내포하는 절의 주어는 선행사로 선호되지 않는다. ‘자신’은 관점 부여 대상에 대해 약한 객관화 요구를 보인다. 이러한 약한 객관화 요구는 3인칭에 대한 약한 선호도로 나타나며, 이는 ‘自己’의 경우와 인칭 면에서 상반되는 차단 효과로 나타난다. 반면 ‘自己’는 관점 부여 대상에 대한 객관화 요구가 없다. 그런데 재귀대명사로서 ‘自己’의 기능은 어느 대상에게 화자가 관점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3인칭보다는 1인칭이 관점 부여 대상으로서 선호되며 이로 인해 차단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자기’와 ‘자신’은 정신적 측면이 강조되는지 신체적 측면이 강조되는지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자신’은 신체를 포함해 분리되지 않는 자아를 나타내므로 반드시 의식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자기’는 분리된 자아를 나타낼 수 있으며 따라서 의식성 해석이 다소 약화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자기’는 보통 국부 결속이 선호되지 않지만, 국부 결속이 허용될 때는 보통 추상적, 심리적 행위를 나타내는 술어와 함께 쓰인다. 중국어 재귀대명사 ‘自己’의 경우에는 아마도 이러한 역할 분담이 없기 때문에 ‘분리된 자아’를 나타낼 수도 있고, 술어의 의미에 관계없이 국부 결속이 가능하다.

【參考文獻】

- 강범모(1998), 〈문법과 언어 사용〉, 《국어학》 31.
 성광수(1981), 〈국어 재귀대명사에 대한 재고-자기와 자신을 중심으로〉, 《한글》 172.
 임홍빈(1987), 《국어 재귀사 연구》, 신구문화사.
 한송화(2013), 〈재귀대명사 “자기”의 의미와 기능 연구-“자기”와 “자신”의 말뭉치 용례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8.
 홍순성(1987), 〈한국어 재귀대명사의 특질〉, 《동서문화》 19.
 程工(1994), 〈生成語法對漢語“自己”一詞的研究〉, 《國外語言學》 1.
 王瑩瑩·潘海華(2012), 〈長距離“自己”的語義-語用解釋理論及其問題〉, 《當代語言學》 14.
 Cole, P., Hermon, G., & Sung, L. M.(1990), “Principles and parameters of long-distance reflexives”, *Linguistic inquiry*.
 Clements, George(1975) “The Logophoric Pronoun in Ewe: Its Role in

- Discourse”, *The Journal of West African Languages* 10.
- Huang, C.-T. J. and Liu, Luther, C.-S.(2001), “Logophoricity, Attitudes, and Ziji at the Interface”, *Long-distance Reflexives*, vol. 33 of *Syntax and Semantics*.
- Huang, Y.(1994), *The Syntax and Pragmatics of Anaphor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u, C. S. L. (2003). “Pure reflexivity, pure identity, focus and Chinese ziji-benshen”,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2.
- O’Grady, W.(1987),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anaphora: The role and representation of grammatical relations*. Language.
- Pan, Haihua(2001) “Why the blocking effect?” In Peter Cole, Gabriella Hermon and James Huang, eds., *Long Distance Reflexives*, vol. 33 of *Syntax and Semantics*.
- Sells, Peter(1987) “Aspects of Logophoricity”, *Linguistic Inquiry* 18.
- Xue, P.(1992). “The Distribution of Chinese Reflexives”, *Working Papers of the Linguistics Circle* 11.

【中文提要】

本文認為漢語反身代詞‘自己’和韓語反身代詞‘자기’、‘자신’都有一個共同的功能，那就是說話人給某對象虛擬的視角(perspective)，讓這個對象從自己的視角敘述有關情況。如果說話人給這個對象虛擬的視角，這個對象就應該意識該情況。在包含反身代詞的句子裏，要是先行詞被解釋為不能意識該情況，該句就會很不自然。

韓語反身代詞‘자기’、‘자신’的區別一方面體現在給誰虛擬視角，即對虛擬視角主體的客觀性要求上。‘자기’要求虛擬視角主體應該有很強的客觀性，因此‘자기’的先行詞一般是第三人稱，而且解釋‘자기’的先行詞為包含‘자기’的小句的主語時，該句就不自然。而‘자신’對虛擬視角主體的客觀性要求不强。這個要求只體現在‘자신’優先選擇第三人稱為它的先行詞上。因此‘자신’的阻塞效應和‘自己’的阻塞效應在人稱上方向相反。漢語反身代詞‘自己’沒有對視角主體的客觀性要

求。反身代詞‘自己’的功能本來是給某對象視角，因此如果沒有這樣對視角主體的客觀性要求，那麼與第三人稱相比，‘自己’應該優先選擇第一人稱為它的先行詞。

‘자기’和‘자신’的區別也體現在強調身體方面還是精神方面上。‘자신’表示包括身體的不可分離的自我，因此一般被解釋為有意識性。相反‘자기’可以表示可分離的自我，因此它的意識性解釋有時很弱。而且‘자기’被局部約束時，該小句的述語一般表示抽象行爲或心理行爲。漢語反身代詞‘自己’沒有這方面的分工，它可以表示可分離的自我，而且被局部約束時也沒有語義上對述語的的要求。

【主題語】

自己, 자기, 자신, 長距離約束, 局部約束, 視角, 阻塞效應

투고일: 2014. 4. 15 / 심사일: 2014. 4. 20~5. 5 / 게재확정일: 2014. 5. 10